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초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5호 현대불교
2008년 4월 16일(음력 3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항상 법당이 좁아 추워도 바깥에서, 이렇게 날이 뜨거워도 바깥에 계시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현재에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되겠기에 이렇게 항상 도반으로서 한도량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생, 사생 하는데 사생(四生)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생이라는 뜻을 똑바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이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이 잘 직감하고 행동으로 취해나가야만 되겠으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이 낳는 것이 쉬운 데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해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에 영혼이 깨끗하게 밝고 정갈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건데, 불성이 있기 이전 영혼이라는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는 이 육신이 튼튼하고 정상이어서 불구가 아닌 분들도 영혼이 아주 불구가 되신 분이 있고, 몸은 불구나 영혼이 아주 불구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불구로 나오게 되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가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불구가 된 자체로 인해서 자기의 자책감으로, 어떠한 문제가 닥쳐서 눈물을 흘리고 뼈저리게 울면서라도 자기가 불구라는 걸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소립니다. 자기가 제일 밑에 썼기 때문에 말입니다. 위가 됐으면 잘 보질 못할 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있다 겁니까.

그런데 육신이 멀쩡한 분들도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접촉받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뭐냐하면 모습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벌써 영혼은 아주 불구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 불구가 영혼도 불구나,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정확한 사람들이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걸 비유를 해볼 때에 이 몸이 불구된 사람일수록 더 영혼은 깨끗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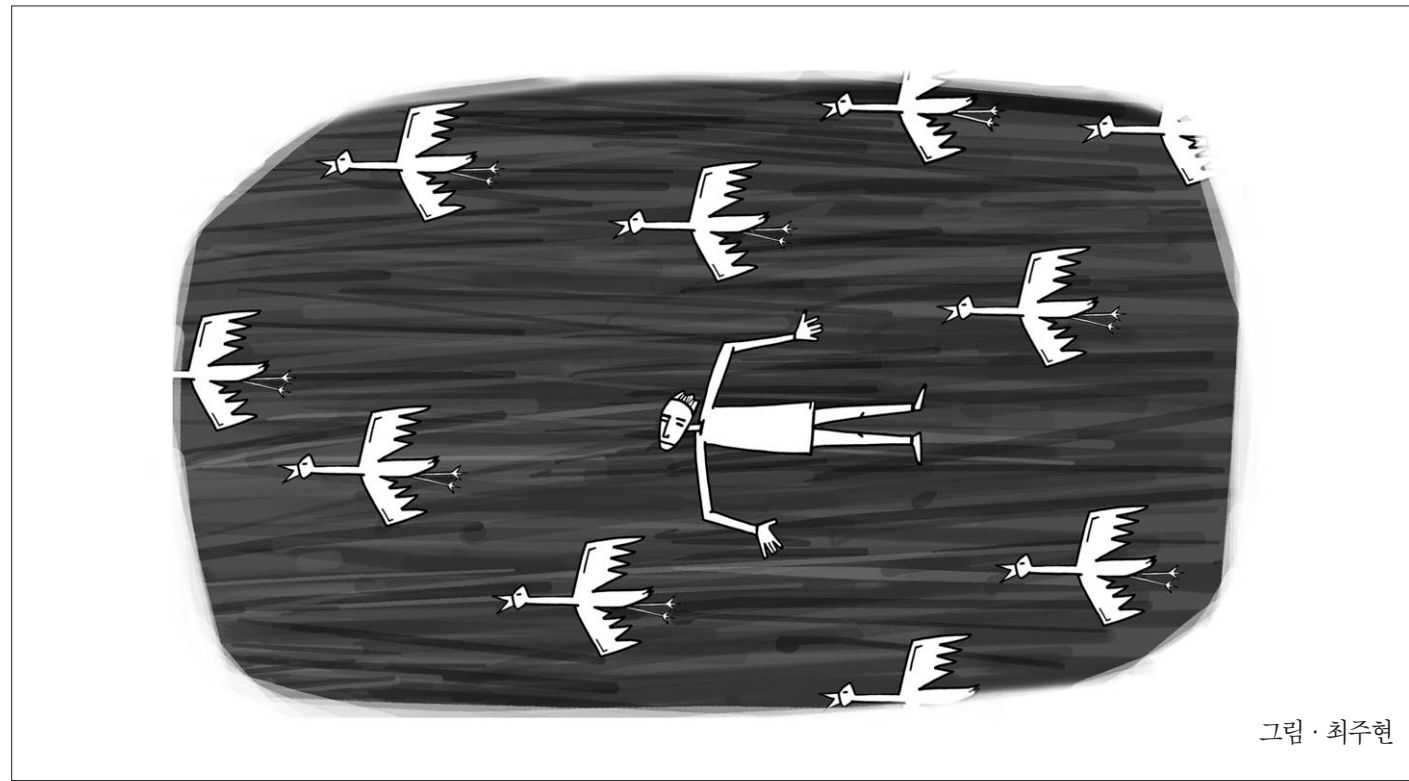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애깁니다. 그러니 그 깨끗한 영혼으로 인해서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 복도 주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인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불구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애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여복하면 자비라는 것을 '비' 자를 무슨 '비' 자로 썼습니까? 슬플 '비' 자로 썼어요? 그러나 가엾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는 가엾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너를 건지는 데는 내가 내가 돼주마. 이 마음이 마음 속에 들어가주지 않는다면 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산 대사 얘기를 또 응용해야 되겠습니다. 서산 대사가 낳는 세도 떨어뜨렸다, 이렇게만 듣지 마세요. 서산 대사 마음이 새가 똥만 애깁니다. 새가 똥이니 자기 마음대로 내려앉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사생, 그래서 자부라고 그랬는데 사생인연을 다 맺어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해냈기 때문에, 돌이 아닌 까닭에 자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생들의 과정을 면밀하게 지금 밝은 세상이니깐 다 보고 사시죠. 사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명도 돌이 아니요, 바로 마음도 돌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돼서 형제가 돼서 살도 또 돌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곁대기가 돼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주는 것도 다 똑같고, 그러나 이 법의 부모는, 여러분이 다 법의 부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법의 부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억겁 전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

뿔 살다가 망가지면 그냥 다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바꾸는 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그러니 오늘 아무렇게나 살다 뭐 죽으면 고만이지 이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 각자 하나씩만 잘못돼도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잘못 끼는 거와 같아서 죽 내러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 안에 안 되면 한 분이라도, 또 전부 다라면 더더욱 좋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까만 부모를 두고 자식이 그냥 별안간에 죽는 거와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 거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식을 못 있어서 그 죽은 자리를 몇 번이고 가서 울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내 몸 이것도 한철 살다가 버릴 집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남의 거를 걸터들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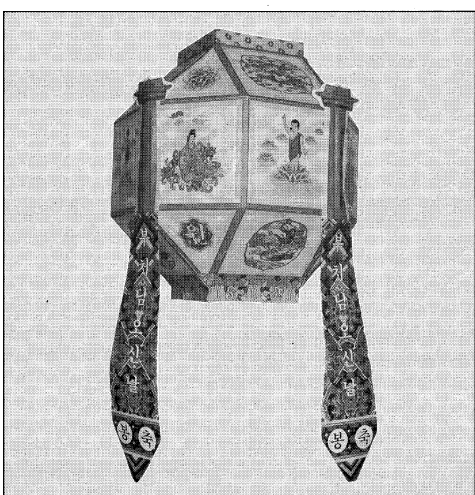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는 거 역지로 잡지 말

고, 나한테 닦는 거 마다하지 말고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나 아님이 없이 해라. 아무리 아랫사람이 강하고 뻗어도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준다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숙여준다. 내가 웃사람이라고 숙여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겹으로는 숙여줄지 모르나 안으로는 전혀 숙여줄 줄 모른다. 이게 진리의 원 근본이죠. 진리에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느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유행이 돼서 살아나가지만 첫째, 유행성있게 내 머리를 숙여서 말을 내 속에만 넣고 탁,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을 안 하면 그냥 그건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여자가 알면 뭘 해?'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오면 화가 나니까 얼굴이 찌푸려지고 웃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보, 왜 그러니까? 뭐 어쩔니까?' 하면 '물라또 왜!'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안에서 그런 걸 다 모르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이러니깐 마음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어머나, 그렇구나. 저거 어렵하든지 잘돼야지.' 하고 마음으로부터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써 주는 것이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의탁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래도 한달에 서너 너댓 번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것이 화합도 도모할 뿐 아니라 서로 일하는 데 마음이 가고 울이 없이 가고 오면서 뒤를 받들어 되는 겁니다. 이 건 몸으로 뭐고 무슨 말로 하고 이래서만이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것에 여러 식구가 한마음이 돼준다면 그냥 이거는 100%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일 모르고 아버지가 자식 하는 일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모르고 이러니까 나가서 혼자 뛰고 혼자 근심 걱정 하고 이러다보면 몸이 망가 피고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안에서 안에는 대로 모

26면으로 계속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이틀당고 및 스러움 등' 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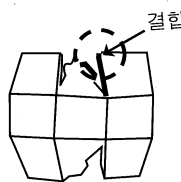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로부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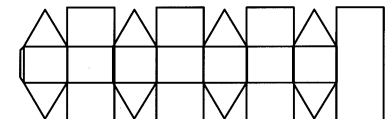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연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043)877-8236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피엔텍
■ 동 합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피엔텍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지은이/ 일광(逸光)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행은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